

전남 천일염 수출 10배·넘치 2.5배

청정수산물 인식 확산… 미·일·중서 주문 쇄도

1분기 전남산 수산물 3400만달러 39% 늘어

깨끗한 전남 바다에서 자란 넘치, 미역 등 고품질 수산물이 해외에서 날개 높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또 청정 해역에서 생산한 천일염도 해외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전남도는 29일 “올 들어 3월 말까지 수산물 수출실적은 3473만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95만 달러)보다 39.2%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한 달간 수출실적도 1760만달러를 기록, 전년 같은 기간(944만달러)보다 816만달러(86.4%) 증가했다.

주요 증가 품목은 천일염, 미역, 넘치, 가공식품 등이다.

주요 수출 대상 국가는 일본(2692만달러), 중국(282만달러), 미국(186만달러) 순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78%가 일본이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또 최근 전복 등의 수요가 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165만달러)보다 116만달러나 늘었다.

천일염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지난해 3월까지 5000달러 수출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만달러로 무려 10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 천일염의 품질고급화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월까지 수출실적이 7만달러에 불과한 넘치도 올해는 2월부터 미국과 일본 등에 24만달러를 수출함

으로써 25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밖에 일본 원전사고 이후 전남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미역의 소비수요가 꾸준히 증가, 올 들어 869만달러를 수출해 지난해(336만5000달러)에 비해 160%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도 이인곤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남산 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품목별 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육 호응

농협 전남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과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호

응을 얻고 있다.

29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곡성농협을 비롯한 관내 127개 지역 농협에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비롯해 농업일반, 기초 영농교육, 농기계 사용법, 문화

이해·체험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협 다문화 여성대학’은 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기초농업 교육과 1:1 맞춤 영농교육 역시 고령화된 농가 인구구조에서 젊은 결혼이민 여성들 농업인력으로 자원화해 우수한 농업인력으로 양성하는데 큰 브이 담당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로 나타났다.

올해도 나주 영산포농협 등 4개소에서 100여명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여수~순천 간 국도와 영암~순천 간 고속도로가 잇따라 개통돼 시외버스 요금도 인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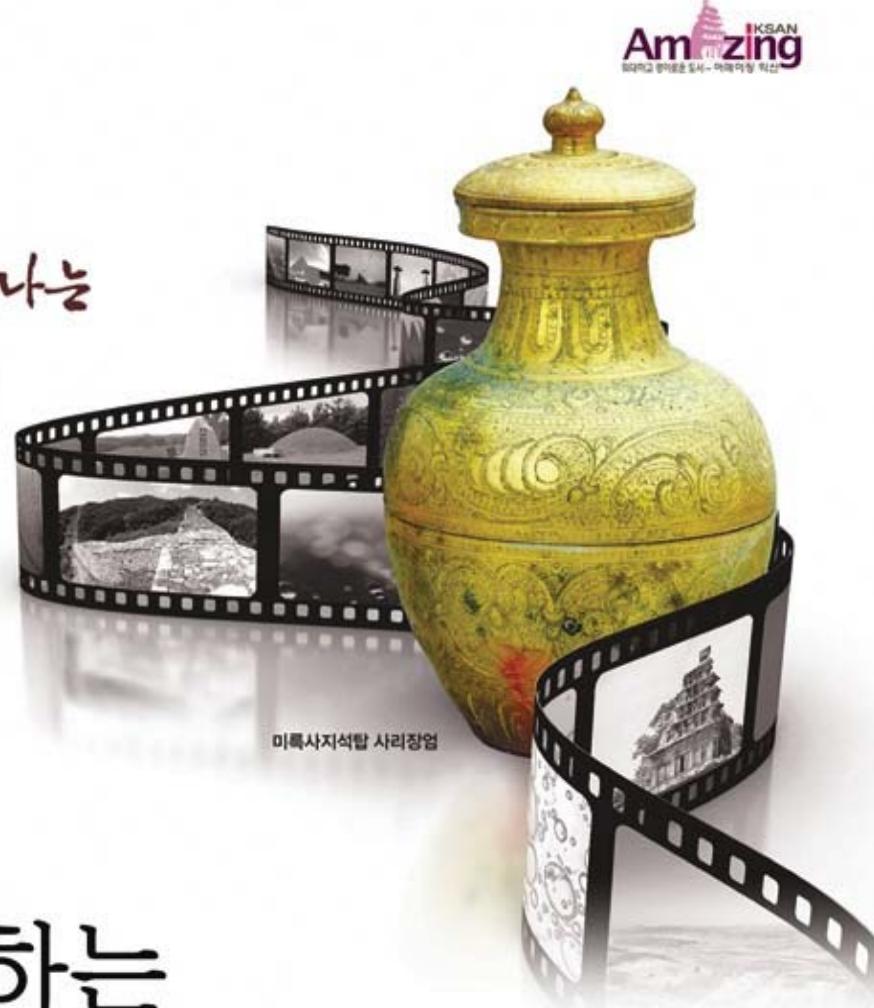
전남도는 29일 “목포~순천 구간을 운행하는 직통 노선, 목포~광양 구간을 128km에서 124km로 줄여 운행시간이 120분에서 80분으로 40분이 단축됐고, 운임도 1만5000원에서 8600원으로 6600원이 인하된다.

또 목포~부산 간은 운행거리가 325km에서 311km로 줄여 운행시간은 5시간40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40분이 단축됐고, 운임은 2만7000원에서 2만1300원으로 5700원 꺾인다.

순천~여수 간도 37.3km에서 34.2km로 줄었고, 운행시간은 50분에서 45분으로 단축돼 운임은 4000원에서 3700원으로 300원이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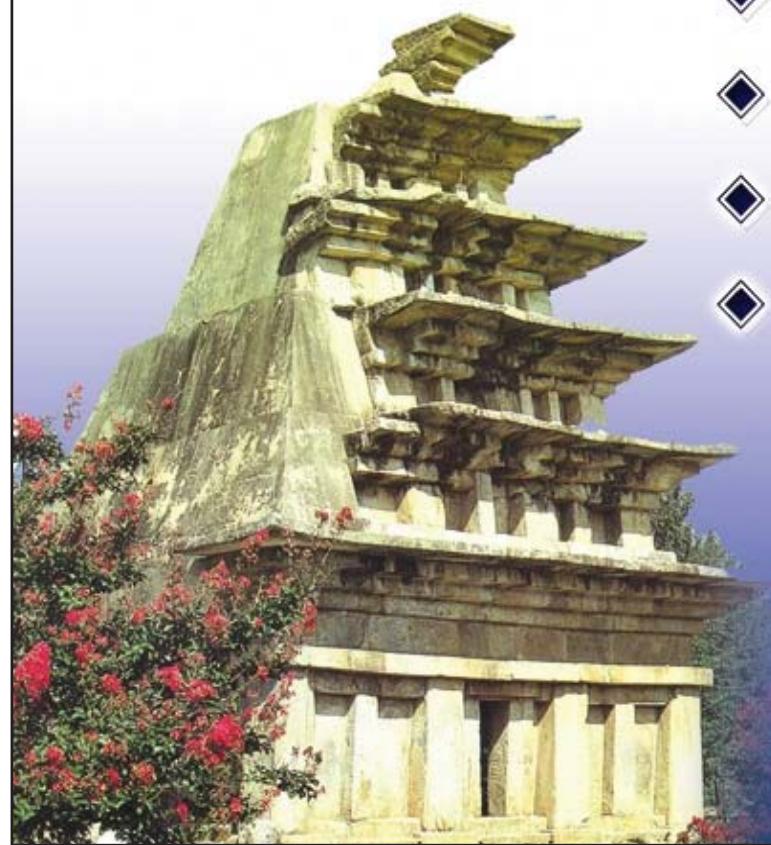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문화유산으로 빛나는
백제왕도 익산



시민과 소통하는
익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 ◆ 연구하고 노력하는 정책의회
-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 ◆ 민생현장 중심의 생활의회
- ◆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의회



익산시의회
<http://council.iksan.go.kr>

광주일보



이충무공 탄신제

립된 첫 사액사이다.

지난 28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67주년을 맞아 여수 충민사에서 탄신제가 거행됐다. 충민사는 통영의 충렬사보다 62년, 아산의 현충사보다 103년 앞둔 건

〈여수시 제공〉

목포~순천, 목포~부산, 순천~여수

시외버스 요금 다음달 내린다

여수~순천, 영암~순천 도로 개통 거리·시간 단축

여수~순천 간 국도와 영암~순천 간 고속도로가 잇따라 개통돼 시외버스 요금도 인하된다.

이에 따라 목포~순천 간은 운행거리가 178km에서 124km로 줄여 운행시간이 120분에서 80분으로 40분이 단축됐고, 운임도 1만5000원에서 8600원으로 6600원이 인하된다.

또 목포~부산 간은 운행거리가 325km에서 311km로 줄여 운행시간은 5시간40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40분이 단축됐고, 운임은 2만7000원에서 2만1300원으로 5700원 꺾인다.

순천~여수 간도 37.3km에서 34.2km로 줄었고, 운행시간은 50분에서 45분으로 단축돼 운임은 4000원에서 3700원으로 300원이 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 신·구항 연결도로 개통

순환형 교통체계 구축

박람회 기간 체증 해소



여수 구도심인 구항(종화동)과 박람회장, 오동도가 있는 신항(수정동)을 연결하는 신·구항 연결도로가 개통됐다.

여수시는 지난 28일 종화동 거북선 대교 아래에서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해 김성근 국회의원,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기관 단체장,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시민로’ 개통식을 가졌다.

신·구항 연결도로는 시비 133억원을 투자해 4차선 터널 173m를 포함해 총 길이 680m 규모로 개통됐다.

이번 공사는 신기술 신공법으로 설계에서 보상, 시공까지 13개월

이 될 것”이라며 “구도심 중심 시가지인 구항과 박람회장, 오동도가 있는 신항을 해안가로 연결해 줌으로써 주변 풍광이 뛰어나 시민들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관광도로’로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광양 월드 아트서커스’ 성공 개최

순천시, 관람권 1만매 구입



순천시는 지난 27일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열리는 ‘광양 월드 아트서커스’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관람권 1만매(3억원)를 구입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광양만권 상생 발전의 모델로서 그동안 소원했던 지자체간 협력 분위기 형성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윤인희 광양 부시장은 “광양만권 시·군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광양 월드 아트서커스’는 여수박람회와 상생 이벤트 행사를 일환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지역 실물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와 순천시는 여수 세계박람회와 201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의지를 갖고 향후 각종 현안에 대해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학교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눈길

장흥·강진 법조인들

학교폭력 예방 강연

장흥지역 법조인들이 딱딱하기 쉬운 법 교육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행사를 진행,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송해영)과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배재덕), 지역 변호사와 함께 ‘학교를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를 시행하고 있다.

토크 콘서트는 음악회 이름을 빌렸지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강연이다.

관할인 장흥과 강진지역 중·고교 21곳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장과 지청장을 비롯한 관·검사와 지역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 삼륜이 한팀이 돼 강연에 나서고 있다.

장흥지원과 장흥지청은 관할 지역

이 장흥과 강진 2곳이다 보니 애매한 학교를 찾아가기로 했다. 다음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콘서트 날짜는 재판이 없는 날을 중심으로 짰다.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토크식 강연을 준비하게 됐다.

관사와 검사 등이 문답을 통해 학교폭력 위험성, 예방법, 대책 등을 말하고 학생들도 직접 대화에 참여한다.

무엇보다 자살 학생의 유서 낭독 등 학교폭력의 폐해를 직접 사례를 들어가며 학생들의 호응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지법=김용기자 kykim@